

11월 농식품 해외시장동향 및 전망 [러시아]

□ 농림수산물 수입동향

(단위: US백만달러, %)

구분	2012년 1-9월 누계			2012년 9월 당월		2011년 1-9월 누계	
	금액	전년동기 대비(%)	비중(%)	금액	동년전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비중(%)
수입 전체	225,810	102.0%	100%	24,892	89.8%	140.0%	100%
식품 및 농업원료	28,315	90.7%	12.5%	3,188	106.1%	124.6%	14.1%

자료: 연방통계청

□ 주요품목 수입동향

(단위: 천톤, %)

품목	2012년 1-9월 누계		2012년 9월 당월			참조	
	물량	전년동기 대비(%)	물량	전년동월 대비(%)	동년전월 대비(%)	'11.1-9/ 10.1-9	'11.9/ 10.9
신선·냉동육	1015	93.5	130	117.6	103.6	105.2	79
신선·냉동돈육	520	95.7	69.9	124.5	112.7	108.5	85.1
신선·냉동가금육	367	115.3	47.7	119.4	99.5	111.6	74.9
신선·냉동어류	524	106.2	68.2	97.5	117.8	85.6	109.7
우유와 비농축크림	149	100.8	9.9	55.5	108.3	108.6	99.3
우유와 농축크림	101	71.3	4	26.1	31.9	80.7	61.6
그중: 건조우유	55.1	74.7	3.3	51.9	41.7	63.6	38.5
버터	70	87	8.3	127.2	131.4	105.2	70
치즈와 커티지치즈	276	89.3	34.3	89	105.4	101.7	107.7
신선 혹은 냉장 감자	446	30.2	1.8	23.3	38.5	3.5배	21.1
신선 혹은 냉장 토마토	617	102.3	37.6	101.8	175.6	101.5	120.3
신선 혹은 냉장 양파, 마늘	259	52.5	7.7	42.6	57	87.2	69.7
양배추	152	49.5	2.7	99.1	129.6	159.4	48.4
신선 혹은 냉장 오이류	110	96.8	3.4	52.5	6.0배	96.7	99.6
신선 혹은 건조 바나나(플랜틴 포함)	934	98.4	77.1	97.1	101.7	123.6	100.1
신선 혹은 건조 오렌지	355	85.1	22.6	135.2	2.4배	120.8	59.4
신선 혹은 건조 귤(맨더린), 클레멘타인, 월킹 및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373	106.8	8.3	78.3	89.5	116.5	93.9
신선 포도	239	103.2	74.5	105.7	142.9	89.4	82.7
신선 사과	901	109.9	68.2	104.5	163.7	93	99.5
옥수수	33.8	31.8	5.4	5.3배	2.5배	3.4배	6.6배
팜유	415	88.5	77.9	121.6	2.1배	121	155.5
해바라기씨유	13.5	15.2	6.2	3.6배	5.3배	168	15.3
야자(코프라)유, 팜핵유	57.4	89.1	9.3	2.1배	176.8	64.2	44.9

혹은 바바수유							
조당	443	19	19.7	...	...	121.5	2.5배

자료: 연방통계청(벨라루시와 카자흐스탄공화국과의 무역지수 합산)

- 비CIS국으로부터의 식품 및 농업원료 수입비중은 전체 수입에서 12.7% 차지(2011년 1-9월 14.0%). 식품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16.4% 감소함. 그중 수입량 감소품목은 버터(13.3%), 감귤류(5.9%), 차(8.0%), 조당(급감). 수입량 증가품목은 가금육(17.5%), 어류(6.6%), 치즈와 커티지치즈(19.7%), 커피(7.1%), 곡물(43.3%)(그중 보리(61.6%), 옥수수(28.6%) 증가)
- CIS국으로부터의 식품 및 농업원료 수입비중은 전체 수입에서 11.2% 차지(2011년 1-9월 14.6%). 식품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27.2% 감소함. 그중 수입량 감소품목은 응축우유(25.3%), 버터(39.5%), 치즈와 커티지치즈(41.3%)

□ 소비 동향

○ 러시아에서 과자류 판매규모 5,800억 루블 이상

- 과자류의 소매판매 규모는 최근 4년간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2011년에 러시아에서 과자류 판매는 전년대비 18.3% 증가한 5,800억 루블로 집계됨
- 과자류 소매판매 규모는 전체 연방관구들에서 전년대비보다 높았음. 과자류 주요소비시장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중앙연방관구임. 판매구조에서 중앙연방관구의 비중은 전체규모의 3분의1 이상임. 불가 연방관구에서 판매비중은 14.8% 수준에 머물렀고 북카프카스연방관구에서 비중은 중앙보다 10배 적음
- 지역판매구조에서 변화가 있음. 2011년에 모스크바 소비자시장에서 전체 과자류의 18.5% 이상이 판매됨. 모스크바 주의 비중은 3배 적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 비중은 모스크바 주 비중보다 1.9% 적으며, 튜멘 주에서는 모스크바 비중보다 6.4배 적음

○ 2012년 8개월간 화훼류 수입 770백만 개 기록, 부케용 신선 장미 인기

- 2012년 1-8월간 러시아연방 세관을 통해 수입산 신선 화훼류 700백만 개 이상이 반입됨. 가장 인기 높은 것은 부케용 장미였음
- 이 기간 동안 러시아인들은 350백만 개 이상의 신선 장미를 구입함. 그 중에서 대부분은 에콰도르와 콜롬비아산임
- 러시아에서 대규모 생산의 절화용 장미 재배를 위한 새로운 온실 프로젝트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러시아 화훼시장은 견고하게 수입산 차지임. 자국산 장미들은 러시아 화훼시장에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할 뿐이며, 일부 지역들에서는 최대 1-2%에 불과함

○ 수입산 거위고기의 약 3분의2는 모스크바에서 소비

-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기 전인 3년 반 동안 러시아시장에서 거위와 뿔닭(기니파울) 고기의 수입 규모는 성장하기 시작하였음. 2009-2010년간 수입규모는 물량기준 4배 이상 성장함. 2010년에 수입규모는 국내시장에서 1.26천 톤을 넘어서. 러시아의 WTO 가입 후 4개월간 수입규모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수입산 거위고기의 약 3분의2는 모스크바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레닌그라드 주에서는 4분의1보다 적게 판매되고 있음. 수입산 거위고기는 이 두 도시 주민들 이외에 칼리닌그라드 주와 마가단 주에서도 소비되고 있음
- WTO 가입국들로의 가금육 수입조건들은 현재 러시아에 존재하는 조건들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기 때문에, 해외 생산자들이 러시아시장의 새로운 조건들에 적응하는 정도에 따라 수입산 제품은 러시아시장으로의 그 공급규모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됨. 게다가 수입산 제품의 러시아시장으로의 훨씬 더 자유로운 접근은 자국생산 성장률 하락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냐하면 거

위고기 맛의 품질과 칼로리로 인해 거위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육류 소매판매 4년 연속 성장세

- 최근 몇 년간 러시아에서 육류 소비는 연간 63kg으로 집계됨. 러시아인들의 절반 이상이 매일 육류를 소비하며 약 4분의1 이상은 일주일에 1-2번은 육류를 먹고 있음. 그리고 약 7%가 한 달에 몇 번씩 육류를 소비하고 있음
- 육류 소매판매는 4년 연속 성장하고 있음. 최근 2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9.4%를 기록함. 2011년에 판매는 8.6% 증가했고, 금액기준 판매규모는 4,500억 루블을 넘어섬. 육류 판매규모 성장세는 2012년에도 유지되었고, 오직 1-6월간만 해도 2,405억 루블 이상 판매됨
- 지역들 중에서는 모스크바가 몇 년간 연속 1위를 보이며, 2011년 모스크바 육류 소매판매는 1,046억 루블을 넘어섰고 총 소매유통의 23.2%를 차지함. 2위는 바쉬키리공화국이 차지함(비중 약 5%). 그 다음으로 다게스탄공화국, 스베르들롭스크 주, 모스크바 주, 로스토프 주 순을 보임

□ 향후 시장 전망

○ 이슈 현안

○ 유기농식품(친환경제품) 라벨링 부착

- 러시아 농업부는 유기농식품 생산에 관한 법안을 개발했으며, 이러한 유기농식품은 러시아표준 혹은 국제표준에 부합해야 하고(현재 세계에는 3가지의 친환경제품 주요 인증시스템이 있음: 유럽연합, 미국, 일본), 그리고 '바이오(bio)' 혹은 '오르가닉(organic)'이라는 라벨링이 있어야 함. 시장전문가의 평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친환경제품들의 가격은 일반제품보다 몇 배나 더 비싸지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법안은 12월에 국가두마(하원) 심의에 상정될 계획임. 러시아표준은 그 요건을 국제표준과 조화시켜 법안 승인 이후에 개발될 예정임
- 친환경제품(eco product)은 승인된 규제기술문서들에 입각하여 제조된 농산물 및 식품이며, 농약, 합성비료, 성장조정물질, 인공식품첨가물을 최소한도로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으며 유전자변형물질이 부재함

(자료: 타트 센터)

○ 우즈베키스탄, 수입식물들 검역 강화 예정

-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의회의 농업 및 수리 문제 입법위원회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식물검역법 개정(변경 및 부가)에 관한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탁회의가 진행됨
- 이 행사에는 의회 의원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각, 농업수자원부, 재무부, 법무부, 대외경제관계부, 투자 및 무역부, 국가관세위원회, 국가자연보호위원회,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 산하 현행법 모니터링연구소의 책임자들,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함
- 전문가들의 언급에 따르면, 전 세계에 걸친 상품들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해 국제원칙 및 표준에 입각한 검역시스템 정비, 제어메커니즘 정착이 요구되고 있음. 해당 법안은 매우 위험한 미생물들의 국내로의 은밀한 침투 방지, 제거 및 폐기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행사에서는 향후 법안 완성을 위한 견해와 의견들이 표명됨

(자료: 우즈베키스탄 뉴스 아논스)

○ 모스크바 시당국, 요식업체에 음식 칼로리 표기 요청

- 모스크바통상국은 식품안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개발하였으며, 당국은 메뉴에다가 음식 칼로리를 표기할 것으로 요식업체에 요청함.

- 현행 요식서비스규정에 따르면, 오직 어린이음식과 다이어트음식에만 칼로리를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모스크바 당국은 아직 일반 레스토랑과 카페의 메뉴에 이 정보를 표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요식업체들과 합의를 할 계획임
- 요식업체 관계자들의 의견은 아직 불분한데, 한편으로는 음식 칼로리에 대해 알고 그 소비를 관리하는 것은 잉여적인 일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이국적인 제품이 메뉴에 있는데 이러한 음식들의 칼로리를 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 왜냐하면 레스토랑에서 음식 1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데 약 1,000루블이 지출되기 때문임

(자료: 인터넷신문 더 빌리지)

○ 2011년 마카로니류 수입 2.4% 성장

- 러시아는 매년 마카로니 제품을 수입하며, 수입규모 동향은 굴곡이 있음. 2009년까지 수입규모는 감소한데 비해, 최근 2년간 다소 성장세를 보임. 2011년에 러시아의 마카로니 제품(속을 넣지 않은 마카로니류) 수입규모는 2.4% 증가함(물량기준 108톤 증가)
- 2011년에는 2006년과 비교 시에 속을 넣지 않은 마카로니류 수입규모(물량기준)가 현저히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금액기준 규모는 1.27백만 달러 증가함
- 10개국 이상의 생산자들이 속을 넣지 않은 마카로니류를 러시아시장으로 공급하고 있음. 2011년에는 7개국(독일,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베트남, 체코, 중국)이 러시아 총수입물량의 97%를 차지함.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가 가장 큰 규모로 공급함

(자료: 인테스코 리서치 그룹)

○ 터키산 껌, 2011년 러시아 전체수입의 55% 차지

- 2011년 상황은 러시아구매회사의 수입산 껌 수요가 안정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줌. 2010년에 수입규모가 2.2천 톤이라면, 2011년 말경에는 2.3천 톤에 도달했고 껌 공급규모 성장률은 5.2%를 기록함
- 껌 공급을 받는 러시아지역들 중에서 수입산 껌의 배분을 살펴보면, 3개 지역들이 수입의 95.6%를 차지함. 1위는 노브고로드 주이며, 2011년에 전체 수입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함. 2위는 모스크바이며, 러시아로 공급되는 전체규모의 45.5%에 해당함. 3위는 연해주이며, 1,2위와 큰 갭을 보이는데 전체수입의 3% 조금 더 되는 정도임
- 2011년에 공급국들 중에서 리더는 터키임. 터키는 러시아시장에 전체 껌의 55% 이상을 공급했으며 물량기준 1.3천 톤으로 집계됨. 2위는 폴란드이며 러시아 껌 수입의 30.8%를 차지함. 그 다음은 4.2%를 차지하는 브라질임
- 수입산 제품의 가격형성정책에서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음. 2011년 가격분석에 따르면, 수입산 껌 가격은 평균 10.73천 달러/톤임. 일 년 사이 가격은 인상했으며, 성장률은 12% 이상임. 러시아영토로 반입된 상품 중 가장 높은 가격을 확립한 공급국은 스위스로 95.1천 달러/톤임. 스위스는 가격수준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평균지표보다 훨씬 높은 38.04천 달러/톤에 도달함

(자료: 테비즈 그룹)

○ 수입 전망

√ 2012년 러시아 와플시장규모 1.2% 증가 예상, 수입비중 성장 트렌드 유지 전망

- 와플 부문은 러시아 과자류(밀가루 사용한 과자류) 시장규모의 12.5%를 넘어서고 있음. 2011년 러시아 와플시장규모는 물량기준 전년대비 1.6% 성장함. 러시아의 WTO 가입이라는 조건 속에서 2012년 결산 시에 시장규모는 물량기준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해외 와플제품의 비중은 7%까지 증가하고 자국생산자들의 제품 비중은 93%까지 내릴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12년 1-7월간 우크라이나, 폴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세르비아, 이탈리아, 벨기에, 터키, 불가리아, 프랑스, 기타 국가들의 생산자들이 러시아로 와플을 수출하였음. 대러 와플 공급규모는 주로 우

크라이나가 수행했으며(총 규모의 71.4%), 폴란드 비중은 12%, 독일 7.4%, 오스트리아 약 2.9% 임. 그 나머지 국가들의 비중은 러시아로 수입되는 와플의 6% 정도에 불과함

- 2011년부터 러시아 와플시장에서 수입산 제품 비중의 성장 트렌드가 또다시 생겨났으며, 1% 성장함. 수입비중 성장 트렌드는 2012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와플제품 공급규모는 연간 결산 시에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비스킷(쿠키) 수입 다소 성장할 것으로 예상

- 러시아의 실질적인 WTO 가입 조건 속에서 과자류시장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시장은 물량 기준 10%이상 증가함. 2011년에도 역시 성장세를 보였으나 훨씬 낮은 성장률이었음. 2012년 결산 시에 기존의 성장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단, 성장지표의 둔화를 보일 것임
- 자국생산자들의 제품은 시장에서 거의 전체 비스킷(쿠키)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고 첫 한 달 반 동안 러시아식품시장으로 수입산 비스킷의 급격한 반입은 나타나지 않았음. 2012년에 시장에서 수입산의 비중 성장은 0.7%p 정도로 전망됨. 2013년에 비스킷 해외공급자들은 시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냐하면 수입관세율이 주로 러시아과자류 시장 중에서 설탕 사용하는 과자류 부문에서 인하되기 때문임. 밀가루 사용하는 과자류 부문에서는 관세율 변화가 아주 낮은 수준에 불과할 것임
- 러시아시장으로 달콤한 비스킷을 공급하는 주요 공급국은 2012년 1-7월간 우크라이나(물량기준 69% 이상 점유율), 이탈리아, 한국, 폴란드, 중국임. 생강비스킷을 공급하는 국가로는 폴란드, 스웨덴, 중국, 우크라이나, 독일, 기타 국가들이 있음. 러시아가 수입하는 생강비스킷의 상당부분은 폴란드산임

√ 러시아의 WTO 가입은 냉동반가공품 수입규모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니... 수입산 비중 감소 3.6%p 전망

- 러시아의 WTO 회원가입은 아직 러시아시장에서 냉동반가공품 수입규모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시장에서 수입산 제품의 비중은 2011년 수준보다 아직 낮은 채로 남아있음
- 러시아생산자들의 제품은 러시아국내시장에서 냉동반가공품 규모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음.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고 2달이 지났지만 수입산 냉동반가공품이 러시아식품시장으로 급속도로 흘러들어오지는 않았음. 2012년 결산 시에 시장에서 수입산 제품의 비중 감소는 3.6%p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시장으로의 냉동반가공품 주요 공급국은 물량기준 폴란드, 중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베트남, 아이슬란드 등임. 폴란드의 비중은 2011년에 물량기준 34.4%를 차지함. 중국의 비중은 폴란드보다 1.8배 적었으며, 네덜란드의 비중은 중국보다 2.4배 적음